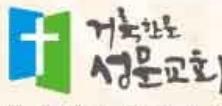


가정예배지는 성문교회 홈페이지의
거룩한 문 소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holygatechurch.org



원로목사 황정식
담임목사 고동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4길 9

2022 추석 가정예배순서

목 도

다같이

alleluia,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1-2)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시편 16:8-11

8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이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도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러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형편은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도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가족들에게도 삶의 순간순간 위기와 시련이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함이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마음과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2절에서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혼과 마음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회복을 누립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고난과 위기로 인하여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로 인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열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함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누리고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족 합심기도

다같이

- 1 온 가족이 추석 명절을 통해 마음을 모아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 2 온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소서
- 3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예배 기도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